

광양시, '은둔형 위기가구 자립 지원' 성과

3년 간 집 없이 지낸 위기가구 市 발굴 노력...홀로서기 지원 신경정신과 병원진료 동행 등 공적자원·민간자원 연계 결실

광양시가 은둔형 위기가구를 지원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제10기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희상, 민간위원장 허형재)위원으로 구성된 광양읍 감동지기대(대장 정광철)가 관내 은둔 위기가구의 자립을 위한 온기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읍 감동지기대는 지난해 12월 8일 제10기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장 긴급 지원을 위해 결성됐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은둔 위기가구의 이사를 돕기 위해서다.

광양읍 감동지기대원 6명은 올해 해당 가정이 광양읍 맞춤형복지팀 연계로 LH 주거사항 지원사업에 선정돼 7개월간의 여관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게 되면서 자립 지원에 나섰다.

이번 수혜 가구가 보건복지부 복지사

각지대 발굴 대상 가구로 처음 통보된 것은 2020년이다. 하지만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무응답으로 만남이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2022년 11월, 대략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이어온 위기가구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의 50여 회에 걸친 지속적인 방문이 빛을 본 순간이었다.

결국 위기가구는 맞춤형복지팀과의 상담을 시작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소통을 시작한 위기가구는 △맞춤형복지팀의 신경정신과 병원진료 동행, 사회복지급여 신청 및 모니터링 상담 △빈첸시오 광양성당봉사단의 주기적인 가정방문과 식생활 지원 △광양라이온스클럽 생필품 및 후원금 전달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찾아가는 밀반찬 및 생필품 지원 △광양밀알회와 △광양시사랑나눔재단의 긴급 후원금 지원 △광양중앙로타리클럽의 중고가전나눔 △광양읍 감동지기대(대장 정광철) 이사봉사 △광양인테리어(대표 황민석)의 생활가구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의 연계로 건강을 되찾고 지난 8일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이사해 홀로서기를



광양읍 감동지기대가 관내 은둔 위기가구의 자립을 위한 온기 나눔에 앞장섰다.

광양시 제공

시작하게 됐다.

새로운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된 수혜자는 "원인불명의 호흡곤란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던 4년 전에는 희망도 없고 앞이 캄캄했는데 광양읍과 여러 단체의 계속된 도움으로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며 "그동안 도움을 준 주무관님의 성함도 모르는데 하늘로 보낸 딸 같아 많이 의지 했다. 그동안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전

했다.

권희상 광양읍장은 "광양읍은 언제나 관내 위기가구의 도움 요청에 귀 기울이고 위기해소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다"라며 "어려운 곳에 늘 민간단체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 관에서도 큰 힘이 되고 구원 투수 같아 너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연계해서 함께 행복한 광양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전속예술단 무용단 신설 군민 문화 향유 증진 도모

고흥군은 전속예술단 활성화와 군민 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무용단을 신규로 창설하고 군수 집무실에서 지도자 및 단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지난 6월 전속예술단의 무용단 지도자 및 단원을 공개 모집하고 서류, 실기, 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도자 1명과 단원 5명, 총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신규 지도자 및 단원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고흥군 전속예술단 무용단원으로서 지역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주 3회 연습공연을 실시하며, 관내 축제 및 읍·면 행사 시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 예술 향유에 힘을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분들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과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 군민들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 전속예술단에는 총괄 감독과 지도자 2명, 사물놀이단 7명, 판소리창극단 5명, 무용단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예술단이 활동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보성군 울포항 예비대상항 선정

보성군은 울포항이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울포항을 지속 성장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해양수산부, 기재부 등에 2015년부터 국가어항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2019년에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용역에서 30개 항 중 전국 2개 항을 선정했으나, 울포항은 3순위에 그치는 아쉬움도 있었다.

2024년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공모 결과 전국 12개 항이 신청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0개 항이 선정되었고, 울포항은 전국 2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에 선정된 울포항은 어선 이용 빈도, 어항 방문객 수, 배후 인구 규모, 관광 인프라 등 남해안 중심의 무궁한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을 확인했으며, 향후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총사업비 445억원(국비 100%)을 투입해 △어구 보관창고 신설, △방파제 연장 및 확장, △항내 정온도 개선, △이안제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문금주의원을 비롯한 해수부 관계자와 평가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울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폭염의 일상화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이 '민생 현안 살피기' 주력

노관규 순천시장이 민선8기 하반기의 중심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민생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최근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진 가운데, 노 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에 나섰다.

노 시장은 지난 9일 울촌·해룡산단에

위치한 현대IFC(주)와 ㈜도이프를 방문해 금속 구조 및 자유단조제품과 임플란트 부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둘러보며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규제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역상생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노 시장은 폭염의 일상화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등을 점검하

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챙겼다. 시민분들께 충분한 수분 섭취와 무더운 낮 시간대 외출 자제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을 홍보했다.

노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앞으로도 민생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지역경제, 시민복지 등 '민생 현안 살피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18억 지원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5대의 수소버스(고상)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주)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이며,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인당 1대 한정, 대당 3억70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매 보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체결 후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선정 기준은 신청서 제출 순이 아닌 차량 출고·등록 순이다. 신청서 검토 결과 지원 자격을 부여받더라도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 지원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또는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생태과(061-659-381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정부의 친환경 상용차 확산 정책과 여수의 수소산업 도시 조성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친환경차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차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주거 취약 가구에 새 지붕 선물 구례군 토지면 복지기동대

구례군 토지면 복지기동대(대장 윤동은)는 지난 8일 저소득 취약 가구에 대한 지붕 개량 봉사활동을 펼쳤다.

토지면 복지기동대는 사례 회의를 통해 70년 이상 된 목조 주택에 거주하시는 독거 어르신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해 장마철 누수가 발생하고 폭우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복지기동대와 자원봉사 단체인 초심회(회장 김승식)가 힘을 모았다.

초심회는 4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복지기동대에 전달하고, 지붕 교체 작업에도 따뜻한 손길을 보냈다.

토지면 복지기동대 윤동은 대장과 초심회 김승식 회장은 "우리의 작은 후원과 재능 기부를 통해 어르신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되고 기쁘다"며 "어르신들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기원 토지면장은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 도움을 주신 토지면 복지기동대와 초심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과 관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주변의 복지위기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진일보 @jin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inlbo.com